

##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우 영 지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진로행동의 예측변인으로서 진로포부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남성 참가자들은 예측대로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여성 참가자의 경우에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포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진로포부가 적응적이고 낙관적인 진로미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타협과정을 고려한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진로포부가 적응적인 진로행동을 위한 선행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진로포부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적응적으로 기능하도록 개입하는데 성차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진로포부, 진로미래, 자기개념 명확성, 성차

\* 본 연구는 2010 두뇌한국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소년들이여, 포부를 가져라(Boys, be ambitious.)”라는 William S. Clark의 익숙한 말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개인이 포부를 갖는 것은 이상적이고 어쩌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추구하는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진로포부는 진로행동에서의 동기적인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Metz, Fouad, & Ihle-Helledy, 2009; Johnson, 1995; Farmer, 1997). 그러나 진로포부에 대한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포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대부분의 연구가 결과변인으로서의 진로포부가 어떠한 심리적, 맥락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가를 규명하는데 집중해왔다(Farmer, 1997; 박용두, 이기학, 2008). 이러한 경향은 높은 진로포부의 수준이 항상 긍정적인 진로선택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Metz 등(2009)은 높은 진로포부가 때로 현실성이 결여된 기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로행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진로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진로포부가 진로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 진로결정과정에서 진로포부가 진로행동의 직접적인 선행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Metz 등, 2009)을 고려할 때, 진로행동의 결과변인 대신 진로행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태도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래를 대안적 결과변인으로 상정하였는데 진로미래는 직업세계에서

잘 적응할 것이며 미래 진로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포함하고 있다(Rottinghaus, Day, & Borgen, 2005; 최옥현, 김봉환, 2006). 이러한 진로미래는 진로를 계획하고 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아상으로써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파생된 낙관성을 바탕으로 한 일반화된 기대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서의 성과를 예측하는 효능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Betz, 2004; Rottinghaus 등, 2005; 최옥현, 김봉환, 2006). 진로미래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하여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자신의 학업에 더 많이 노력하며, 진로결정효능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Rottinghaus 등, 2005; 최옥현, 김봉환, 2006), 이는 진로에 대한 낙관적이고 적응적인 특성이 결과적으로 적응적인 진로행동으로 연결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진로미래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이 기존 적응적인 진로행동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인들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진로미래를 대안적 결과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Savickas(1997)는 진로적응성이 계획과 탐색, 그리고 결정의 세 가지 중심적인 구조를 갖는 진로성숙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한바 있으며, Duffy와 Blustein(2004)의 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을 적응적 진로행동의 결과변인으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진로낙관성은 증가한 진로에 대한 기회의 결과변인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Friedman, Kane, & Cornfield, 1998), 직업 지식이 진로선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Crites, 1976)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 또한 긍정적 진로행동의 결과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미래는 이미 형성되어진 개인성향이라기보다는 변화할 수 있는 태도의 변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Savickas(1997)는 특히 진로 적응성이 변화하는 직업역할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태도적인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되며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Seligman(1990)이 낙관성 수준이 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이러한 낙관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진로낙관성 또한 개입 및 교육을 통하여 학습되며 향상이 가능한 변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높은 진로포부와 긍정적인 진로미래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직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Cochran(1983)은 진로에 대하여 높은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지향점을 갖는다면 미래 직업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더욱 분명하고, 자신의 진로 미래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진로에 대한 자신의 지식도 더욱 풍부하게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진로포부와 진로 미래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며, 이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된다면 진로포부가 적응적인 진로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됨이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로포부가 적응적인 진로태도의 선행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Metz 등(2009)이 진로포부의 현실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래전 Super(1953)는 자기개념에 있어서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격차를 살펴

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얻고자 하는 직업세계와 자신의 이미지를 일치시켜나가기 위하여 자기개념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요인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Cochran(1983)은 이러한 현실적인 자기개념에 대하여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아 존중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직업적 자기개념에 대하여 더 결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직업적 대안에 대하여 분명하고 안정적이며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Barrett & Tinsley, 1977). 또한 높은 자아 존중감은 미래의 긍정적인 전망과 연관되므로(Melges, Anderson, Kraemer, Tinklenberg, & Weisz, 1971)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연결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특성이고, 개인의 자기개념을 측정함에 있어서 평가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지식이나 명확성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Smith, Wethington, & Zhan, 1996; 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ee, & Lehman, 1996). 그러한 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개념 명확성이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이 자기개념에 대하여 내적으로 시간적으로 안정적이며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정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Campbell 등, 1996).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자 하는 자기개념간의 일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타당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진로포부가 더욱 긍정적인 진로미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차가 있을 것임을 가정하였다. 우선, 진로포부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성 역할 사회화 과정의 질적인 차이(Arbona, & Novy, 1991; Gary & O'Brien, 2007; Amstrong, Crombie, 2000; 김완석, 김선희, 2005)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진로포부의 형성 과정의 성차에 대하여 연구했던 박용두와 이기학(2008)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지각보다는 집단자존감과 사회적인 지지가 포부 형성에 더욱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집단 자존감과 사회적인 지지가 여성이 진로포부를 형성할 때 진로장벽을 덜 높게 지각하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외적인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로포부를 조절한다는 타협이론을 살펴보면(Gottfredson, 1981) 여성의 경우 타협과정에서 커리어에 대한 지향이 높은 경우 흥미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성역할을 마지막으로 고려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완석, 김선희, 2005).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성유형이나 명성을 보다 먼저 고려하고 흥미를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한다는 연구 결과도 찾을 수 있다(Blanchard & Lichtenberg, 2003). 그런 의미에서 남성은 스스로의 선호를 고려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에 맞추어 직업적 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할 것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여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장벽으로 지각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그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현

재 직업적 성취를 위하여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 자존감(예, 좋은 대학)을 취하고, 방해가 되는 사회적 자아개념(예, 여자로서의 진로장벽)을 덜 고려한 채(박용두, 이기학, 2008) 남성보다 더욱 개인적인 선호(흥미)가 더 많이 반영된 포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성의 진로포부는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성과정을 거치므로 자기개념 명확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낙관적 진로미래와 정적으로 연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기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낮은 경우에 내적으로 만족할만한 자발적인 포부가 아닌 사회적으로 부과된 포부만을 가지게 되므로 진로미래를 낙관적으로 지각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남성집단에서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를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할 것이다.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를 강하게 할 것이다.)

**가설 2.** 여성집단에서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를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하지 않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윤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서

울소재 4년제 대학 네 곳에 재학 중인 225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91명(평균 나이=20.9세, 표준편차=2.54), 여학생이 134명(평균 나이=20.6세, 표준편차=1.71)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설문 참여에 앞서 간략한 연구소개 및 참가자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설문이 끝남과 동시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았다.

#### 측정도구

##### 진로포부

진로포부 측정도구는 Gary & O'Brien (2007)에 의하여 개발된 진로포부척도(Career Aspiration Scale: CA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 진로분야에서 성취와 관련한 높은 계획과 목표를 측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포부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75로 나타났다.

##### 진로미래

진로미래를 측정하기 위하여 Rottinghaus 등 (2005)가 개발하고 최옥현과 김봉환(2006)이 번안 및 타당화한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진로미래검사는 미래에 있을 변화에 대처하며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예상 불가능한 사건들에 대하여도 계획을 변화시키며 회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진로적응성(6문항), 미래에 진로분야에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진로계획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낙관성(11문항), 노동시장 및 고용경향에 대하여 가진 지식을 의미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3문항)의 요인으로 이루어

어져 있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위와 같은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각각 .86, .90 그리고 .85로 나타났다.

#####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Campbell (1990)이 개발하고 송보라(2009)가 번안한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 SCC)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분명하고, 자기에 대한 지식들 간 내적으로 일치가 높으며, 자기지식의 시간적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자료는 남녀 각각 따로 분석되었으나 남녀 집단에 대하여 분석과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상호작용효과 분석에 앞서 주요한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진로미래에 대한 진로포부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이원상호작용 분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이와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켰고, 두 번째 단계에서 진로미래에 대한 진로포부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주 효과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원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예언변인에 대하여 중앙화(centering)을 한 뒤 독립변인 X 조절변인

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하였다. Aiken과 West(1991)에 의하면 결과 해석에 있어 상호작용항들을 포함한 방정식에서는 상호작용항에 대한  $\beta$ 계수들이 적절히 표준화 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절효과의 양상을 보다 잘 알아보기 위해 진로포부 점수에서 평균값 중간집단, 평균으로부터  $\pm 1$ 표준편차 이상 떨어진 점수들을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하여도  $\pm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진로포부를 예측변인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을 조절 변인으로 진로미래를 예측하는 회귀식에 대입하여 조절변인 수준에 따른 회귀식을 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결 과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진로포부와 진로미래간의 관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자기개념 명확성은 진로포부 및 진로미래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나이와 성별은 진로미래에 대하여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진로포부가 진로미래에 대하여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beta = .27, p < .05$ ). 또한 이 집단에서 진로포부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상호작용항이 진로미래에 대하여 1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04, p < .05$ ).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 진로미래에 대한 진로포부의 주효과가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 = .53, p < .01$ ), 진로미래에 대한 진로포부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Delta R^2 = .005, p = n.s.$ ),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남녀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들간 상관관계 결과

남	여	1. 진로포부	2. 자기개념명확성	3. 진로미래
1			.126	.531**
2		-.112		.091
3		.266*	-.014	
	평균	34.74	35.21	68.88
남	표준편차	2.78	6.73	6.01
	평균	33.96	38.22	68.44
여	표준편차	3.03	5.52	6.67

\* $p < .05$ ,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와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SE B	$\beta$	R <sup>2</sup>	$\Delta R^2$	$\Delta F$	
남자	1	나이	-.113	.409	-.048	.017	.017	.770
		학년	.950	.991	.166			
	2	나이	-.105	.400	-.044	.087	.070	3.312*
		학년	.927	.986	.162			
		진로포부	.573	.224	.266*			
	3	자기개명	.049	.095	.054	.133	.046	.4462
		나이	-.076	.393	-.032			
		학년	.961	.967	.168			
		진로포부	.585	.219	.271**			
	3	자기개명	-.017	.098	-.019			
		진로포부 X 자기개명	.062	.029	.228*			
		나이	-.180	.550	-.046			
학년		.089	.876	.014				
여자	1	나이	-.180	.550	-.046	.001	.001	.085
		학년	.089	.876	.014			
	2	나이	-.305	.481	-.078	.286	.285	25.748**
		학년	.129	.753	.021			
		진로포부	1.172	.165	.533**			
	3	자기개명	.013	.093	.011	.291	.005	.849
나이		-.200	.493	-.051				
학년		-.014	.769	-.002				
진로포부		1.158	.166	.527**				
3	자기개명	-.011	.097	-.009				
	진로포부 X 자기개명	.025	.027	.075				

자기개명: 자기개념 명확성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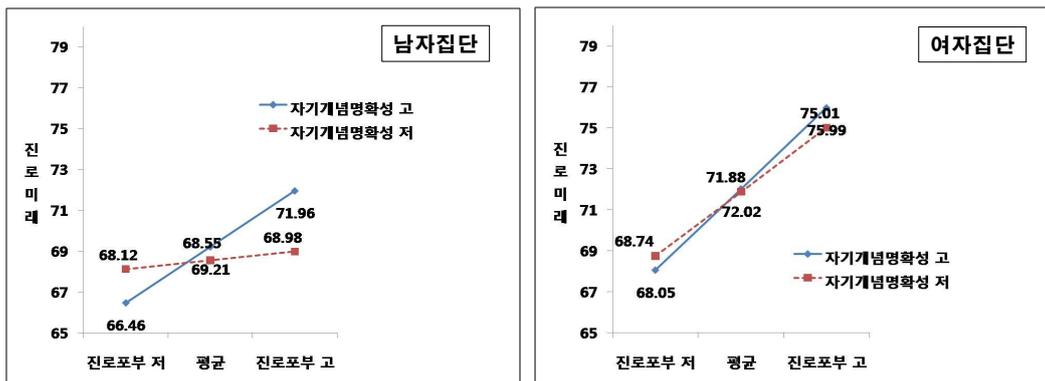


그림 1. 진로미래에 대한 진로포부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진로포부가 일관적으로 적응적인 진로행동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결과변인으로서만 사용되었던 것에 의문을 갖고, 적응적인 진로행동 결과의 선행변인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로포부가 적응적인 진로행동의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진로포부의 형성 및 발달 과정에서 성에 따른 질적인 차이가 발생함에 초점을 맞추었고, 남성 집단에서는 이들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이 조절효과가 있으나 여성 집단에서는 이러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남성에게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고, 여성에게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진로포부와 진로미래를 조절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 2 또한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남성은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경우에 진로포부가 높아질수록 진로미래도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으면 진로포부가 높더라도 진로미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여성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과 관계없이 진로포부가 높으면 진로미래도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언급한대로 진로포부 자체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하면서 이미 질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박용두, 이기학, 2008). 남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로를 인식하고 선택하는 반면, 여성

들의 경우에는 일을 생존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1 p.58, 101). 이를 통하여 보면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높은 성취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자라며 진로에 대한 높은 포부가 형성되지만 일 자체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나 취향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포부가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직업적 성취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기대되며 전통적인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 대신 자신의 사회적 성취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높은 진로포부를 형성하였으므로 자기 개념에 대한 명확성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대생의 높은 진로포부가 비현실적인 기반에서 형성되어 맹목적인 낙관성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정아(2000)는 여대생들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강한 의욕과 자신감이 때로는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벗어나 진보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에 기반하고 있어 구체적인 성취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직업세계에 대한 포부가 자신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진로미래와 직결되어 있어 진로포부와 진로미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지만 그들 간의 관계가 구체적인 현실상황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다소 비현실적으로 연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 가족지향성이 높아지면 일지향성이 낮아지며,

다중역할의 장벽이 높게 지각되면 진로포부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을 보면(Farmer, 1985; 장하진, 2000 p.75) 포부가 형성되기 이전 과정에서 자신에 대하여 숙고하여 진로포부가 형성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에게는 높은 진로포부를 가지기 전 단계에서 장벽에 대해 숙고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기 확신을 가진 결과로 높은 진로포부가 형성되고 나면 이는 곧바로 낙관적인 진로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적인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로포부를 조절한다는 타협이론(Gottfredson, 1981)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타협과정에서 커리어지향이 높은 경우에는 가정지향이 높은 경우보다 흥미를 더 고려하고 성역할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완석, 김선희, 2005). 반면, Blanchard와 Lichtenberg(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타협과정에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약한 타협조건인 경우 흥미, 명성, 성 유형을 고려함에 있어 중요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강한 타협조건에서도 명성이나 성 유형을 보다 먼저 고려하고 흥미를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남성이 자신에게 주어지거나 기대되는 역할을 흥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진로포부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자기 개념에 일관성과 안정성 그리고 확신을 갖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건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자신의 내적 동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미래 진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에서의 성차가 나타난 원인을 정리해보면, 여성은 진로포부가 형성되는 과정 이전에 진로장벽을 고려하게 되고 자신의 내적 동기와 성역할을 타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로포부가 형성되었을 때는 이미 자기이해 및 자기 확신을 갖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진로포부가 진로미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났을 것이라 보았다. 반면, 남성은 성역할과 사회적 기대, 명성과 같은 외적 조건들을 바탕으로 진로포부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개념에 대한 이해와 점검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의 포부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에 따라서 미래 진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지각하는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남녀의 진로포부가 다른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으로 귀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포부가 긍정적인 진로행동의 예측변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남녀에게 각각 다른 개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여성의 경우에는 환경적 요소 및 맥락적 장벽으로 인하여 포부가 너무 낮게 형성되었거나 또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 현실적인 포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진로포부를 갖게 하는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증진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자존감을 습득하도록 하고, 자신의 내적인 욕구에 대하여 인지하면서 현재 진로포부 수준과 미래 진로에 대한 자아상의 균형을 맞춰 조절해가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미래가 적응적인 진로행동과 관련이 높다는 점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Seligman & Schulman, 1986), 미취업의 상태에서 더 잘 대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Wanberg, 1997)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본 척도를 타당화한 Rottinghaus 등(2005)은 진로의 적응성의 측면이 특히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진로결정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최옥현과 김봉환(2006)은 진로미래가 진로결정효능감, 직업정체감,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Metz 등(2009)이 밝혔듯,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 진로행동에 진로포부가 직접적인 선행변인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진로행동을 대신한 진로미래라는 태도변인과 진로포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한 것은 진로 연구에 있어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진로미래라는 변인을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본 연구가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진로포부의 발달 및 기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인하여 남녀 각각에 대하여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의 질적인 차이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해하고 연구를 정교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학업적인 성취가 높은 서울소재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제한적 대상으로 인한 결과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서울소재 대

학생들이 지방 소재 여대생과 비교할 때 가족 지향성이 더 낮음을 보고한 연구(장하진, 2000 p.74)를 참고할 때, 특히 여대생의 경우 일반적인 여대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포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의 발달과 기능에 대한 중요한 함의 점을 담고 있으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포부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제공하였으나, 보다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진로포부의 발달 과정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환경과 맥락적 장벽에 의하여 진로 포부가 형성되고 이 진로포부가 진로미래를 예측하는 경로를 경험적인 연구로써 확인한다면 여성의 진로포부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William S. Clark의 말인 “소년들이여, 포부를 가져라(Boys, be ambitious.)”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고 한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큰 뜻을 품어라(Not for money, not for aggrandizement, not for the evanescent thing which men call fame,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이 숨겨진 구절과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포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포부는 얼마나 크게 갖는가보다는 무엇을 위한 어떤 포부인가가 직업세계에서의 긍정적인 미래조망과 직결되는 조건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완석, 김선희 (2005). 여성의 커리어선택의 타협과정: 여성의 역할지향성과 포부수준에 따른 타협요인의 선호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3), 345-373.
- 박용두, 이기학 (2008).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모형 검증: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63-282.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01). 여성과 직업. 시그마프레스. p.58, 101.
- 송보라 (2009).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관계에서의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73-88.
- 장하진 (2000). 여대생의 직업의실 실태와 정책 과제. 노동부. GOVP1200100747. p.74, 75.
- 조정아 (2000). 대졸여성의 노동경험과 직업의식 신화, 노동과 페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areer Future Inventory(CFI)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rmstrong, P. I., & Crombie, G. (2000). Compromises in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from grades 8 to 10.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82-98.
- Arbona, C., & Novy, D. M. (1991). Career aspiration and expectations of Black, Mexican, and Whit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257-268.
- Barrett, T., & Tinsley, H. (1977).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01-307.
- Betz, N. E. (2004). Contribu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career counseling. A personal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2, 340-352.
- Blanchard, C. A., & Lichtenberg, J. W. (2003).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250-271.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849.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ochran, L. R. (1983). Level of Career Aspiration and Strength of Career Orient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 1-10.
- Crites, J. O. (1976). A comprehensive model of career development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 105-118.
- Duffy, R. D., & Blustein, D. L.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religiousness,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3), 429-440.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Farmer, H. S. (1997). Women's motivation related to mastery, career salience, and career

- aspiration: A multivariate model focusing on the effects of sex role socializ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355-381
- Friedman, R., Kane, M., & Cornfield, D. B. (1998). Social support and career optimism: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network groups among black managers. *Human Relations*, 51(9), 1155-1177.
- Gary, M. P., & O'Brien, K. M. (2007). Advancing the assessment of women's career choice: The career aspiration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317-337.
- Gottfredson, L.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career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Johnson, L. (1995).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vocational aspiration of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28(1), 25-44.
- Melges, F., Anderson, R., Kraemer, H., Tinklenberg, J., & Weisz, A. (1971). The personal future and self-estee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5, 494-497.
- Metz, A. J., Fouad N., & Ihle-Helledy, K. (2009). Career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college students-Demographic and labor market comparis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55-171.
- Rottinghaus, P. J., Day, S. X., & Borgen, F. H. (2005). The career future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47-259.
- Seligman, M. E. P. (1990).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 Seligman, M. E. P., & Schulman, P. (1986). Explanatory style as a predictor of performance as a life insurance ag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32-838.
- Smith, M., Wethington, E., & Zhan, G. (1996). Self-concept clarity and preferred coping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64(2), 407-434.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Wanberg, C. R. (1997). Antecedents and outcomes of coping behaviors among unemployed and reemployed individua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267-296.
- 1 차원고접수 : 2010. 7. 21.  
심사통과접수 : 2010. 11. 5.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4.

## **The Relation between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Future: The Gender Differences Moderating role of Self-Concept Clarity**

**Young Jee Woo**

**Ki-Hak Lee**

Yonsei University

Although career aspiration(CA) was not accurate reflection of subsequent career behavior, it was studied as a result variable in most of studies in the past.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clarify the functioning process of CA as antecedents of adaptive career behavior. Researchers assumed career future(CF) as an adaptive career behavior, and hypothesized that CA are related to CF, and self-concept clarity(SCC) plays a role in this relationship on male but not on female participants. As expected, high level of SCC performed a significant role between high level of CA and high level of CF for males. For females, however, effect of SCC did not influence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CA and CF. Those results imply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 on development of CA, and different interventions by genders considering career compromising proces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relation between CA and CF.

*Key words : career aspiration, career future, self-concept clarity, gender difference*